

고졸 NEET와 대졸 NEET*

남재량**

I. 들어가며

청년의 니트화(NEET化)로 대표되는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청년실업 문제로 통칭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청년실업이라기보다는 청년의 비노동력화 문제이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매우 낮으며 청년실업률이 경제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주요 국가들의 경우보다 심각하지 않다. 우리나라 청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비노동력화하는 현상이 매우 강하여 청년 니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청년의 니트화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우리는 청년의 고학력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남재량, 2012).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증가로 대표되는 고학력화는 인력수급에 있어 구성상의 불일치와 질적 불일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된다. 청년에 대한 노동시장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보다 취업준비나 진학준비 등으로 비노동력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시장(market)이 자신을 저급한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일부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비노동력화를 촉진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지속된 대학진학률 증가는 청년 노동시장을 만성적인 고학력자 초과공급 상태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 본 연구는 Nam, Jaeryang(2012)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rnam@kli.re.kr).

최근 추세를 달리하여 수년 동안 계속되는 대학진학률 하락은 이러한 만성적인 초과공급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반응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아울러 극히 최근 들어 불기 시작한 고졸채용 확산도 이러한 여러 상황 변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인 데에 그치고 말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중요한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 니트화 현상을 학력집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청년 니트 현황 및 추이와 함께 특히 고졸 니트와 대졸 니트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현황과 추이 및 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년 니트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청년 니트의 최근 현황과 추이를 살펴본다. 아울러 청년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제Ⅲ장은 청년 니트를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집단들로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Ⅳ장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비구직 니트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들의 주된 활동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Ⅴ장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청년 NEET의 최근 현황과 활동상태

1. 청년 NEET의 최근 현황과 추이

니트(NEET)라 함은 일을 하지도 않거나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것이다. 이 용어는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은 이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정의한 후 관련 통계를 구해 자국의 청년 문제를 살펴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여 청년 니트에 대한 비교적 엄밀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남재량, 2006). 본 연구는 남재량(2006, 2011)과 동일한 정의¹⁾에 입각하고 있으며 동일한

1) 남재량(2006)은 청년 니트를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한국의 청년 니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표 1>은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일반적으로 15~29세 인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5~29세 청년의 문제가 30대 초반까지 이어지거나 누적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령을 다소 확장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이미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한다. <표 1>을 보면 먼저 15~34세 인구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29세로 정의되는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15~34세 인구도 표에서 보듯이 감소하고 있다. 2003년에 14,759천 명이던 15~34세 인구는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13,468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청년 니트의 규모는 다소의 등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03년에 1,148천 명이던 청년 니트의 수가 2011년에 1,32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 니트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 니트와 그렇지 않는 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고 있다. 구직 니트는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청년이므로 대부분 실업자로 분류된다. 반면 비구직 니트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비노동력화하는 청년이므로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청년의 비노동력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청년 비구직 니트는, <표 1>에서 보듯이, 분석기간 내내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5~34세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크게 대비된다. 2003년에 751천 명이던 청년 비구직 니트가 2011년에 이르면 무려 100만 명을 돌파한 1,008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비구직 니트가 월별 자료로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은 있으나 연도별 자료에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 2011년이 처음이다. 청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당연히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의 청년인구에 대한 비율은 2003년 5.1%에서 2011년 7.5%로 상승하였다. 청년 100명 가운데 7.5명이 비구직 니트이며 구직 니트까지 고려하면 10명에 가깝다. 이는 이들 니트 자신과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니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만 하더라도 비구직 니트는 973천 명으로 전년도 918천 명에 비해 55천 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이르면 996천 명으로 23천 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2011년에는 1,00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천 명 증가한 데 불과하여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 둔화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당시 비구직 니트는 3년 동안 45천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으

〈표 1〉 청년 니트의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34세 인구	14,759 (100.0)	14,504 (100.0)	14,162 (100.0)	13,937 (100.0)	13,787 (100.0)	13,696 (100.0)	13,618 (100.0)	13,545 (100.0)	13,468 (100.0)
니트	1,148 (7.8)	1,214 (8.4)	1,270 (9.0)	1,267 (9.1)	1,233 (8.9)	1,249 (9.1)	1,326 (9.7)	1,344 (9.9)	1,327 (9.9)
구직 니트	397 (2.7)	407 (2.8)	397 (2.8)	386 (2.8)	343 (2.5)	331 (2.4)	353 (2.6)	349 (2.6)	319 (2.4)
비구직 니트	751 (5.1)	806 (5.6)	873 (6.2)	881 (6.3)	891 (6.5)	918 (6.7)	973 (7.1)	996 (7.3)	1,008 (7.5)
니트 아님	13,611 (92.2)	13,290 (91.6)	12,893 (91.0)	12,671 (90.9)	12,553 (91.1)	12,447 (90.9)	12,293 (90.3)	12,200 (90.1)	12,141 (90.1)

로 단지 15천 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듬해인 2009년에 다시 흐름이 바뀌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5만~6만 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비구직 니트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과거와 달리 비구직 니트 증가세 둔화가 2005년 이후 매우 빈번히 관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청년 비구직 NEET의 주된 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부터 개인들의 ‘주된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을 더욱 세분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년 비구직 니트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2>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중이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2011년에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388천 명으로 청년 비구직 니트의 38.5%를 차지한다. 388천 명이 쉬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전년도에 비해 40천 명 증가한 결과이다. 38.5%라는 높은 구성비는 2004년에도 한 차례 기록한 바 있으며 쉬었음의 비중은 모든 연도에서 30%를 크게 상회한다. 취업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거나 군입대를 위해 대기하는 것도 아니며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2007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3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그뿐만 아니라 취업준비라는 응답의 비중이 2003년 조사 이후 2008년까지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하였을 정도로 급속히 높아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2003년 취업준비 비중은 16.2%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 34.7%를 기록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30%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활동상태는 진학준비로서 2011년에 17.1%를 기록하고 있다. 진학준비의 2003년 비중이 15.3%임을 감안하면 응답 비중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그리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다. 해당자의 수도 분석기간 동안 115천 명에서 173천 명으로 증가한 데에 불과하다.

쉬웠음과 취업준비 및 진학준비의 비중을 모두 고려하면 2011년에 85.9%로 주된 활동상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세 가지 응답 비중은 2003년에 66.2%에 머물렀으므로 이

<표 2>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122	157	201	262	281	319	301	310	306
	(16.2)	(19.5)	(23.1)	(29.7)	(31.6)	(34.7)	(30.9)	(31.1)	(30.3)
진학준비	115	111	123	124	137	124	145	179	173
	(15.3)	(13.7)	(14.1)	(14.1)	(15.3)	(13.5)	(14.9)	(18.0)	(17.1)
심신장애	63	68	63	59	52	61	68	51	47
	(8.4)	(8.4)	(7.2)	(6.7)	(5.9)	(6.7)	(7.0)	(5.1)	(4.7)
군입대 대기	90	63	66	55	50	43	43	55	51
	(12.0)	(7.8)	(7.6)	(6.2)	(5.6)	(4.7)	(4.4)	(5.5)	(5.1)
결혼준비	11	8	14	11	8	12	7	8	8
	(1.5)	(1.0)	(1.6)	(1.3)	(0.9)	(1.3)	(0.7)	(0.8)	(0.8)
쉬웠음	261	310	329	305	309	316	360	348	388
	(34.7)	(38.5)	(37.7)	(34.6)	(34.6)	(34.4)	(37.0)	(34.9)	(38.5)
기타	89	89	76	66	54	45	50	47	36
	(11.9)	(11.0)	(8.7)	(7.5)	(6.1)	(4.9)	(5.1)	(4.7)	(3.5)
전 체	752	806	873	881	891	919	973	997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기간 동안 무려 19.7%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주로 취업준비의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이 기간 동안 취업준비 비중은 16.2%에서 30.3%로 14.1%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실업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면 취업준비의 형태로 비노동력화하는 것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낙인효과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III. 청년 NEET의 집단별 특성

1. 성별 특성

이제 청년 비구직 니트의 현황과 추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3>에서 보듯이 남성은 2003년 508천 명에서 2011년 626천 명으로 118천 명 증가하는 데에 그쳐, 그 비중이 67.6%에서 62.1%로 하락하였다. 반면 여성은 동일 기간 동안 244천 명에서 382천 명으로 138천 명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32.4%에서 37.9%로 5.5%포인트 상승하였다. 여전히 남성이 비구직 니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²⁾ 1995년에 여성 비중은 26.9%에 불과하였다.

<표 3> 성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성	508	523	544	540	554	573	614	622	626
	(67.6)	(64.8)	(62.3)	(61.3)	(62.2)	(62.4)	(63.1)	(62.4)	(62.1)
여 성	244	284	329	341	337	345	359	374	382
	(32.4)	(35.2)	(37.7)	(38.7)	(37.8)	(37.6)	(36.9)	(37.6)	(37.9)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남재량(2006, 2011).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현상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고학력화,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이 급속히 고학력화하고 고학력화에 따라 비구직 니트화가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를 초래한 한 단계 더 깊은 원인을 고학력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집단별 특성

청년 비구직 니트의 연령구성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대가 비구직 니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4세와 25~29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구성비는 2011년에 무려 69.8%에 이른다. 이는 20대가 15~34세 청년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6.3%에 비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20대 전반의 청년이 15~34세 청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5>에서 보듯이 19.8%에 불과하고 20대 후반 연령대의 비중도 26.5%에 그쳐 20대 청년의 비중은 15~34세 청년인구 전체에서 46.3%를 차지하는 데에 그친다.

한편 20대 가운데에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20~24세 연령의 비중이 2011년 35.7%에 달하고 있어 15~34세 청년을 5세 단위로 구분한 연령집단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연령대의 비중은 2003년에 무려 44.7%를 기록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높았으나 분석기간 동안 9.0%포인트나 하락하여 2011년 35.7%에 머물게 되었다.

20대 후반부인 25~29세 연령이 비구직 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34.1%로서 20~24세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동일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비구직 니트 가운데 20대 후반 연령의 구성비 변화 방향은 20대 전반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즉 25~29세의 2003년 비구직 니트 연령구성 비중은 표에서 보듯이 26.5%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분석 기간 동안 7.6%포인트 상승하여 2011년에 34.1%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30~34세 연령 비중은 2011년에 16.4%를 기록하여 20대 후반 연령대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이 30~34세 연령대의 구성비 변화는 20대 후반 연령대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이 연령대의 2003년 비중은 12.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16.4%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반면 15~19세는 청년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 5>에서 보듯이 2011년에 24.9%로 높으나,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불과하다. 게다가 15~19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2003년 16.3%에서 2011년 13.8%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구직 니트의 연령구성 변화를 요약하면 ① 20대의 압도적인 비중과 ② 고령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저하에 따른 청년층 자체의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 5>와 <표 4>를 자세히 비교하여 검토하면 청년 비구직 니트의 고령화는

청년층 전체 연령구성의 고령화보다 훨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년 비구직 니트의 급속한 고령화는,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청년인구의 급속한 고학력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학력화에 따라 노동시장 진출 연령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비노동력화하는 청년의 연령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표 4> 연령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 ~ 19세	123	109	122	104	103	110	115	130	139
	(16.3)	(13.5)	(13.9)	(11.8)	(11.6)	(11.9)	(11.9)	(13.0)	(13.8)
20 ~ 24세	335	359	383	361	325	318	339	365	360
	(44.7)	(44.5)	(43.9)	(41.0)	(36.5)	(34.6)	(34.9)	(36.6)	(35.7)
25 ~ 29세	199	226	243	291	320	337	360	352	344
	(26.5)	(28.1)	(27.9)	(33.1)	(36.0)	(36.7)	(37.0)	(35.3)	(34.1)
30 ~ 34세	94	112	125	125	142	154	158	150	166
	(12.5)	(13.9)	(14.3)	(14.2)	(15.9)	(16.7)	(16.2)	(15.0)	(16.4)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15-34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 ~ 19세	3,165	3,070	3,046	3,103	3,203	3,238	3,286	3,338	3,347
	(21.4)	(21.2)	(21.5)	(22.3)	(23.2)	(23.6)	(24.1)	(24.6)	(24.9)
20 ~ 24세	3,349	3,278	3,067	2,880	2,734	2,681	2,649	2,644	2,668
	(22.7)	(22.6)	(21.7)	(20.7)	(19.8)	(19.6)	(19.5)	(19.5)	(19.8)
25 ~ 29세	3,854	3,793	3,807	3,861	3,918	3,902	3,843	3,719	3,567
	(26.1)	(26.1)	(26.9)	(27.7)	(28.4)	(28.5)	(28.2)	(27.5)	(26.5)
30 ~ 34세	4,391	4,363	4,243	4,095	3,932	3,875	3,840	3,844	3,886
	(29.8)	(30.1)	(30.0)	(29.4)	(28.5)	(28.3)	(28.2)	(28.4)	(28.9)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3,4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학력집단별 특성

이제 청년층 비구직 니트의 특성을 학력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먼저 <표 6>에서 보듯이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1년에 이 비중은 55.2%를 차지하여 15~34세 청년층 전체에서 고졸 비중인 39.4%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고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2003년의 63.6%에서 오히려 8.4%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7>을 보면 이러한 고졸 비구직 니트 비중의 하락이 청년 전체에서 고졸 비중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년 전체에서 고졸의 비중은 2003년 50.4%에서 2011년 39.4%로 11.0%포인트 하락하여, 비구직 니트에서 고졸 비중 하락폭인 8.4%포인트를 능가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 비중의 하락은 청년 전체에서 고졸의 비중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 전체에서 고졸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은 고학력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졸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에서 비중이 높은 학력집단은 대졸이다. 2011년 이 집단의 구성비는 25.3%인데, 이는 2003년의 16.3%에서 9%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청년층 전체에서 대졸의 비중은 동일 기간 동안 18.6%에서 23.3%로 4.7%포인트 증가한 데에 불과하다. 이는 대졸의 비구직 니트화 속도가 청년의 대졸화 속도를 넘어서고 있어 대졸의 비구직 니트화를 촉진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존재할 것임을 암시한다.

청년 비구직 니트에서 전문대졸의 비중은 대졸 다음으로 높다. 즉 2011년 비구직 니트에서 전문대졸의 비중은 13.5%인데, 이는 2003년의 10.4%에서 3.1%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다. 청년 전체에서 전문대졸의 비중이 2003년 12.9%에서 2011년 16.8%로 3.9%포인트 상승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비구직 니트에서 전문대졸 비중의 증가는 주로 청년층의 전문대졸 증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구직 니트 가운데 중졸 이하의 비중은 2011년에 5.9%로서 2003년의 9.7%에 비해 3.8%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동일 기간 동안 청년 전체에서 중졸 이하의 비중이 18.1%에서 20.4%로 2.3%포인트 상승한 것과 상반된다. 즉 청년 가운데 중졸 이하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비구직 니트에서 중졸 이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중졸 이하 저학력집단의 구성 비중 감소는 청년의 비구직 니트화 경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학력집단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비구직 니트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 전체의 고학력화보다 더 급속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표 6> 학력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졸 이하	73	76	78	71	70	69	77	63	60
	(9.7)	(9.4)	(8.9)	(8.1)	(7.9)	(7.5)	(7.9)	(6.3)	(5.9)
고졸	478	481	508	491	473	466	526	557	557
	(63.6)	(59.6)	(58.2)	(55.7)	(53.1)	(50.8)	(54.0)	(56.0)	(55.2)
전문대졸	78	102	118	122	118	147	144	125	136
	(10.4)	(12.6)	(13.6)	(13.8)	(13.2)	(16.0)	(14.8)	(12.6)	(13.5)
대졸 이상	122	148	169	197	230	236	227	251	255
	(16.3)	(18.3)	(19.3)	(22.4)	(25.8)	(25.7)	(23.3)	(25.2)	(25.3)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15-34세의 학력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졸 이하	2,676	2,618	2,533	2,636	2,705	2,760	2,801	2,775	2,753
	(18.1)	(18.1)	(17.9)	(18.9)	(19.6)	(20.1)	(20.6)	(20.5)	(20.4)
고졸	7,436	7,025	6,684	6,282	5,985	5,725	5,526	5,431	5,302
	(50.4)	(48.4)	(47.2)	(45.1)	(43.4)	(41.8)	(40.6)	(40.1)	(39.4)
전문대졸	1,902	2,058	2,124	2,104	2,183	2,254	2,281	2,268	2,269
	(12.9)	(14.2)	(15.0)	(15.1)	(15.8)	(16.5)	(16.7)	(16.7)	(16.8)
대졸 이상	2,744	2,802	2,822	2,916	2,913	2,957	3,011	3,070	3,144
	(18.6)	(19.3)	(19.9)	(20.9)	(21.1)	(21.6)	(22.1)	(22.7)	(23.3)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3,4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V. 고졸 NEET와 대졸 NEET

1.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고학력화가 청년의 비구직 니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았으므로 청년 학력집단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또는 시각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고졸채용의 확산과 관련해 고졸 관련 각종 통계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누구를 고졸로 분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고졸 통계들은 순수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가운데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휴학 중이거나 중퇴한 사람들도 고졸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채용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제시하는 통계들은 대학 진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고졸 가운데 순수하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전체 고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고졸자를 따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비구직 니트화와 최근의 고졸 채용 경향 등을 반영하여 청년 비구직 니트를 대상으로 순수 고졸자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비교를 위해 순수 대졸자에 대한 통계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8>과 <표 9>는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및 기타로 구분한 비구직 니트의 학력구성과 청년 전체의 학력구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표들이다. 먼저 <표 9>에서 보듯이 2011년에 청년층 전체 가운데 순수고졸의 비중은 17.0%이며 순수대졸의 비중은 20.5%로서 순수대졸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나 이는 분석기간 동안 순수대졸 비중의 증가와 순수고졸 비중의 하락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즉 순수고졸의 비중은 2003년에 3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17.0%를 기록한 것이고, 순수대졸은 16.1%에서 20.5%로 상승하였다.

비구직 니트의 구성 변화도 청년층 전체 가운데 순수고졸 및 순수대졸의 구성변화와 유사하다. 다만 순수고졸의 비중이 순수대졸의 비중보다 더 크다는 차이가 있다. 즉 2011년에 비구직 니트 가운데 순수고졸의 비중은 24.5%로서 23.5%를 기록한 순수대졸의 경우보다 구성비가 1%포인트 더 높다. 그리고 구성비의 시간에 걸친 변화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수고졸의 비중 감소와 순수대졸의 비중 증가로 나타난다. 다만 청년층 전체에서 순수고졸의 구성비는 분석기간 동안 15.2%포인트 감소하였으나, 비구직 니트에서 순

<표 8> 학력별 비구직 니트 현황: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수고졸	231	235	237	217	225	224	232	235	247
	(30.7)	(29.1)	(27.2)	(24.6)	(25.2)	(24.4)	(23.9)	(23.6)	(24.5)
순수대졸	113	135	159	185	215	219	211	236	237
	(15.0)	(16.7)	(18.2)	(21.0)	(24.2)	(23.9)	(21.7)	(23.7)	(23.5)
기타	407	436	476	479	450	475	530	525	524
	(54.2)	(54.1)	(54.6)	(54.4)	(50.6)	(51.8)	(54.5)	(52.7)	(52.0)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15-34세의 학력 구성 :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수고졸	4,754	4,397	3,989	3,557	3,219	2,908	2,618	2,438	2,294
	(32.2)	(30.3)	(28.2)	(25.5)	(23.3)	(21.2)	(19.2)	(18.0)	(17.0)
순수대졸	2,380	2,418	2,437	2,526	2,541	2,553	2,609	2,687	2,766
	(16.1)	(16.7)	(17.2)	(18.1)	(18.4)	(18.6)	(19.2)	(19.8)	(20.5)
기타	7,625	7,689	7,736	7,854	8,027	8,235	8,391	8,420	8,409
	(51.7)	(53.0)	(54.6)	(56.4)	(58.2)	(60.1)	(61.6)	(62.2)	(62.4)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3,4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고졸 비중은 6.2%포인트 하락하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순수대졸이 청년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비구직 니트에서 구성비는 8.5%포인트 상승하여 상승폭이 더 크다.

2.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비구직 NEET의 주된 활동상태

이제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10>과 <표 11>은 각각 순수고졸과 순수대졸의 주된 활동상태를 정리한 표들이다.

먼저 순수고졸의 경우를 보면 주된 활동상태 가운데 쉬었음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1년에 쉬었음의 비중은 45.8%이며 2003년 46.1%, 2004년 51.1%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학준비이다. 2011년에 진학준비의 비중은 28.1%로 높은데 이는 2003년 14.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이러한 진학준비 비중의 상승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고학력화의 또 다른 한 단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준비의 비중은 의외로 높지 않아 2003년에 7.9% 그리고 2011년에 6.8%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취업준비 비중의 급격한 상승이 적어도 순수고졸 집단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할 것은 2009년 이후 순수고졸의 쉬었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9년 50.7%를 기록한 이후 쉬었음의 비중은 2010년 46.6%, 2011년 45.8%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졸채용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경우 순수고졸의 쉬었음 비중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나마 위안거리로 삼을 만하다.

<표 10> 순수고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18	16	18	23	24	27	23	22	17
	(7.9)	(6.7)	(7.6)	(10.4)	(10.7)	(11.8)	(9.8)	(9.1)	(6.8)
진학준비	34	32	35	36	42	43	41	56	70
	(14.8)	(13.6)	(14.9)	(16.3)	(18.4)	(19.0)	(17.6)	(23.6)	(28.1)
심신장애	27	28	28	24	20	25	32	25	23
	(11.8)	(11.8)	(11.6)	(11.0)	(8.8)	(11.2)	(13.5)	(10.5)	(9.4)
군입대 대기	18	13	12	6	9	6	5	9	14
	(7.8)	(5.7)	(5.1)	(2.9)	(4.0)	(2.7)	(2.2)	(3.8)	(5.7)
결혼준비	4	2	6	4	3	2	2	3	4
	(1.7)	(1.0)	(2.5)	(2.0)	(1.3)	(0.9)	(0.7)	(1.1)	(1.4)
쉬었음	107	120	120	105	112	107	118	110	114
	(46.1)	(51.1)	(50.3)	(48.2)	(49.5)	(47.5)	(50.7)	(46.6)	(45.8)
기타	23	24	19	20	17	15	12	12	7
	(9.8)	(10.2)	(8.0)	(9.2)	(7.3)	(6.8)	(5.3)	(5.3)	(2.8)
전 체	232	235	238	219	226	225	233	236	24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순수대졸의 주된 활동상태는 순수고졸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이는 한편으로는 순수고졸과 순수대졸 등으로 구분하는 학력집단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1>에서 보듯이 순수대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활동상태는 취업준비이다. 2011년에 이 비중은 무려 63.5%에 달하는데, 이는 2003년의 48.4%에 비해 15.1%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취업준비의 비중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8.4%에서 69.5%로 무려 21.1%포인트라는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취업준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고용불안 및 환경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재량 외(2011)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이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직률이 항구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고용불안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고용불안 증가와는 달리 공공부문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될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비해 연금도 잘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이 불안하며 연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청년들의 생

애소득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의 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으며 공공부문의 보수는 매우 높다. 또한 공공부문은 3D 직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도 지났으므로 졸업하자마자 곧장 취업해서 빨리 목돈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해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청년 가운데 공공부문 취업준비자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일종의 변형된 대기실업(wait unemployment)으로도 볼 수 있겠다. 보다 엄밀한 분석과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나, 취업준비의 비중 증가는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순수대졸의 쉬었음 응답은 2011년에 22.8%, 2003년에 21.6% 정도이다. 이 정도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니나 50%를 넘나드는 순수고졸의 경우와는 크게 대비된다. 순수대졸의 진학준비 비중도 2011년에 7.3%로 높지 않다.

<표 11> 순수대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취업준비	55	74	95	123	151	154	137	149	152
	(48.4)	(54.6)	(59.3)	(66.0)	(69.5)	(69.5)	(64.4)	(62.6)	(63.5)
진학준비	10	12	13	13	15	11	15	21	17
	(8.8)	(9.2)	(8.4)	(6.9)	(6.9)	(5.0)	(7.1)	(8.7)	(7.3)
심신장애	3	4	3	2	2	3	5	2	1
	(2.7)	(2.9)	(2.1)	(1.1)	(0.7)	(1.4)	(2.1)	(1.0)	(0.5)
군입대 대기	1	1	1	2	2	2	2	2	1
	(0.7)	(0.6)	(0.9)	(1.2)	(0.7)	(1.1)	(0.9)	(0.8)	(0.6)
결혼준비	3	3	3	3	2	5	2	3	2
	(2.6)	(2.0)	(1.6)	(1.5)	(0.9)	(2.5)	(0.8)	(1.1)	(0.9)
쉬었음	25	30	31	31	36	38	44	51	54
	(21.6)	(21.9)	(19.2)	(16.5)	(16.6)	(17.3)	(20.6)	(21.5)	(22.8)
기타	17	12	14	13	10	7	9	10	11
	(15.2)	(8.8)	(8.6)	(6.9)	(4.6)	(3.2)	(4.1)	(4.3)	(4.4)
전 체	114	135	160	187	217	221	212	238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V. 마치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청년의 니트화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다. 청년의 니트화 및 비구직 니트화 현상은 대학진학률 증가로 표현되는 고학력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력집단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 니트화의 현황과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비구직 니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마침내 2011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34세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청년 비구직 니트의 현황 및 추이를 집단별로 살펴보기 위해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 집단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과거에 관찰되던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청년 비구직 니트는 여성화, 고령화, 그리고 고학력화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고학력화 현상은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및 고령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어 고학력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음도 보였다. 여성의 고학력화 및 고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연령 고령화는 청년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및 고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력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시각을 다소 달리하여 순수한 고졸자 집단과 순수한 대졸자 집단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며 구분된 특징들이 순수고졸과 순수대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순수고졸의 경우 주된 활동상태로 쉬었음의 비중이 최근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아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순수고졸의 쉬었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근의 고졸채용 현상이 더욱 확산되면 쉬었음 비중의 감소세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수고졸의 주된 활동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진학준비의 비중이 쉬었음 다음으로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고학력화 현상의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순수대졸의 주된 활동상태는 취업준비였다. 최근 취업준비의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2007년의 짧은 기간 동안 취업준비의 비중이 무려 2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취업을 위한 준비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의 발생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높아진 고용불안에 비해 공공부문의 높은 고용 안정성과 은퇴 후 연금 보

장, 공무원 보수의 상승 등을 염두에 두고 자산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노동력 공박판매 회피 등을 함께 감안한다면 공공부문 취업을 위한 준비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아울러 순수대졸의 쉬었음 비중은 20%를 오르내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순수고졸의 경우와 달리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분된 학력집단별로 구분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KLI**

<참고문헌>

- 남재량(2012), 「고졸채용 / 최근 국내 채용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월간 인사관리』.
- _____ (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제72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 남재량 외(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Nam, Jaeryang(2012),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 _____ (2011),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